

지구촌 신년 기상도



지난해 이라크 사태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레바논 전쟁, 북한 핵 실험 등으로 격동의 한 해를 보낸 지구촌은 새 해에도 인류 공동의 위협에 맞서 싸우면서 각 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무한경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 이후 네오콘의 퇴조가 두드러진 미국에서는 2008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권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세계질서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주도권은 새로운 강자 중국의 부상으로 도전 받고 있다. 유럽 역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 퇴살아나는 민족주의 불씨와 내전으로 치닫는 이라크 사태 등 암운도 걷히지 않고 있다. 2007년 국제 사회의 주요 변수를 짚어본다.

떠오르는 中國, 美 패권주의에 도전장



美 대선 레이스 신호탄 울렸다

새해 3월 미국 동북부 끝자락 뉴햄프셔주에서 시작될 양당의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대권주자들의 출마선언이 새해 벽두부터 줄을 이을 전망이다. 경제성장과 오일머니에 힘입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회복으로 21세기 패권 다툼과 신(新)냉전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서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는 미국의 대통령에 어떤 가치관과 이념성향을 가진 인물이 되느냐는 세계 정치 판도를 좌우할 시금석이다. 공화당의 경우 선두를 다투는 매케인과 줄리아나가 이미 대선준비위 구성을 마쳤고 롬니 주지사도 출마 선언을 했다. 민주당에선 빌사 주지사가 대선 도전을 첫 공식 표명할 데 이어 '북한풍'인 리처드슨 주지사도 곧 출마표를 던질 예정이다. 힐러리는 새해 초 출마선언을, 오바마는 1월 중 출마 여부를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은 2008년 대선은 민주당의 힐러리-오바마, 공화당의 줄리아나-매케인 카드로 결전을 치를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中 경제 연착륙 변화 주목하라

지난해 성장률이 10년래 최고인 10.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중국 경제의 과열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파급영향이 우려된다. 중국 경제의 문제점은 고도성장에 있다가 보다는 성장구조와 방식에 있다. 투자와 수출이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고 소비는 지나치게 작다. 내수비중이 작아 세계경기 흐름에 민감하다. 국제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난해 10월 외환보유고가 1조달러를 돌파해 세계 1위에 올라섬으로써 위안화 절상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도·농간 소득격차는 사회주의 경제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내수확대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후진국도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4세대 지도부는 성장우선에서 분배우선으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초 열린 연례경제공작회의에서는 성장방식의 질적 전환을 예고했다.

'한국형 리더십' 부상 준비하는 유엔

1945년 창설 이후 전쟁방지와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해 온 유엔의 제8대 사무총장에 반기문 전 외교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최초의 한국인 사무총장 시대가 개막됐다. 반 총장은 그동안 서방국가들이 중심축을 이뤘던 유엔이란 장(場)에서 아시아의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으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 출신인 만큼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창설된 유엔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반 총장 시대를 맞은 유엔은 그러나 창설 초기의 높은 이상 및 기대와는 달리 비효율과 무능, 부패로 얼룩지면서 급변한 국제정세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 총장은 취임선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배치를 거부하고 있는 수단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분쟁의 땅' 아프리카와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올 것인가.

'분쟁의 땅' 阿·中東 평화 올라

지난 1991년 이래 내전에 허덕이고 있는 소말리아는 이제 동부 아프리카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 급진 이슬람군벌인 이슬람법정연대(UIC) 세력의 성장과 기독교 국가인 에티오피아의 개입 이후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단 다르푸르 문제는 여전히 해결점을 찾

제가 이뤄질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2006년 중동은 3년을 넘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고통을 수 없는 후유증이 끝이 보이지 않는 '블랙 홀'로 빠져 들었다. 종파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 납치·살해로 번지고 있는 이라크 상황은 미국이 지금까지 반미 테러 세력과 서구식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의 갈등이라는 이분법으로 보는 이상 제자리를 맴돌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럽 연합, 새 항로 모색하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유럽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주도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최근호에서 전세계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화시대의 경쟁에서 서방이 아시아에 패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 주도국들은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유럽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연합(EU)의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역학 관계에서 유럽의 입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 헌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EU 통합군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EU는 2000년 리스본 전략을 통해 오는 2010년 미국과 아시아의 경쟁상대국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리스본 평가보고서는 회원국들 대해 경제성장세를 최대한 활용해 경제개혁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정주식기자 who@kwangju.co.kr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김재규 경찰학원

KPA 회원 2006년 1차 최종합격 총 156명
2006년 2차 최종합격 총 142명

1월 15일 개강 (수시접수)

- ⑥개월 / 1년 회원제
오전 9시~12시 / 오후 2시~5시 / 6개월 / 6강
- ②개월 이론종합반
오전 9시~12시 / 6개월 / 6강
- ①문제풀이반(매일 1명제)
오전 9시~12시 / 6개월 / 6강

노량진에서 강의하는 교수진 그대로 광주에서 강의합니다.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김재규 교수	조태엽 교수	윤경근 교수
수사	영어	영어
오수평 교수	오순아 교수	김지선 교수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남여고 후문 앞
www.police3112.net

2007 겨울방학

공무원 대특강 개강 1월 2일

2007년 4월 14일 국가직 시험 실시예상!	교정공무원	사회복지직	교정직 특채
	소방공무원	보호관찰직	2007년 3월~5월중 실시
행정직	세무공무원	교육행정직	800여명 모집예상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www.kjkimyoung.co.kr

2008년 1월 시험대비 1학년 대비반 개강

1차개강: 12월 18일, 2차개강: 1월 2일

김윤신 초등교육과정 개강 1월 4일(목)

의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개설과목: 영어/언어추론/생물/화학/유기화학/한문/한의학

김영대학원입학원 동부경찰서 227-8088

이런 난방제 보셨나요?

탄소 섬유난방 바닥제 출시!!

기존 난방제와 비교하지 마세요!

3,000㎡의 VISCOS탄 섬유를 내열성이 강한 실리콘으로 피복한 첨단제품으로 시공이 간단하고 가벼우며, 공간난방까지 가능하여 열효율이, 일반 전열선보다 30% 향상된 신개념 난방 카본 섬유 전열제입니다. 전자파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원적외선 방출량도 최고 수준으로 난방은 물론 건강까지 생각하는 친인간적인 제품이며, 특성상 과열의 위험이 없어 안전합니다. 이 모든 장점에 **기름대비 70%의 저렴한 난방비**, 시공기간의 단축,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성까지 갖춘 난방계의 혁신적인 제품임을 자부합니다.

설치가능지역

- 일반주택 아파트 베란다
- 가속사/요양원 요식원소 사설/모텔

섬유난방 바닥제 특징

- 안전성**
 - 피복 안이유리 섬유로 되어 있어 해충의 무게를 견딜수 있는 견고함과 내구성이 강함
 - 불이완전질식 박리한 Wire가 없는 무연성으로 장수도 화재의 위험이 없어 보편적 시공이 쉬움
- 편리성**
 - 기법고 윤관이 있어 혼자서도 시공이 가능
 - 기존 바닥 철거 없이도 시공 가능
- 경제성**
 - 바닥난방에서 공간까지 열 전도를 높여 추가 때문에 열효율이 30% 향상
 - 기름대비 70%의 저렴한 난방비 / 기법고 윤관이 있어 시공이 용이하고 시공시간을 단축시킴
- 건강성**
 - 유해전자를 흡수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 전자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친인간적 제품
 - 박적외선 방출률 90%로 혈액순환, 성장촉진,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어 건강 유지에 도움

자매품: 원적외선 섬유 매트 전자파 제거 원적외선 90%이상

광주, 전남·북 지사 및 대리점 모집
TEL. (062) 522-0117

영업달리모집 남·여 0명 (최고수입보장)

신개념 탄소섬유전열제 **Blue energy**

문의 062) 522-0117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47번지 블루에너지
moonhi97@hanmail.net